

6-23-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마태복음 6:9-13

말씀제목: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땅에 나타나신 목적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지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히 2:14-15)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요일 3:8)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죽으시기 전부터 유대인들 속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죽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더라.”(마 4:24)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에,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병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라. 그 마귀가 쫓겨나자 그 병어리가 말하 하더라. 우리가 놀라며 말하기를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라고 하더라.”(마 9:32-33)

“그후에 눈멀고 병어리 된, 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주께 데려오니, 그를 고쳐 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멀고 병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무리들이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마 12:22-23)

마귀들을 쫓아내신 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마 12:28-29)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이유에 대해, 사람 속을 차지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심으로써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나라가 임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속을 점령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게 하여 평생을 노예가 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낼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마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죄를 짓게 하고 사망과 저주 속에 살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차지했던 마귀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를 심판하심으로써 영원히 쫓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루시퍼 마귀가 장차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꿰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 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간헐 자들의 집을 열여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나?’ 하리라.”(사 14:12-17)

하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군대대장 미카엘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본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계 12:7-12)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 환란 끝에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땅에 있는 마귀를 묶어서 제거하시기 위해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 천 년 동안 가두시고 천년 후에 그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영원 무궁토록 이루실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 년 동안 묶어 두니 그를 끝없는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 그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받으리라.”(계 20:1-3,7-10)

이로써 마귀가 하늘과 땅으로부터 영원히 쫓겨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땅에 오신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그쁨을 누리며 영광의 소망 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사서 얻어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여전히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냄으로써 그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